

새로운 아태지역 지정학 구도와 한미일 해양협력 과제

박 영 준 *

-
- I. 문제 제기
 - II. 탈냉전기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 변화와 대외전략
 - 1. 미국의 경우
 - 2. 중국의 경우
 - III. 미국과 중국의 아태지역 세력투사
 - 1. 미국의 경우
 - 2. 중국의 경우
 - IV. 아태지역 전략적 경쟁과 협력의 구도
 - 1. 경쟁의 구도
 - 2. 협력의 구도
 - V. 한국의 대응전략: 한미일 해양협력의 방향
-

*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I. 문제 제기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할 때, 정치가나 정치학자들은 해당 국가가 처해있는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국가의 국력증대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경우가 역사상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같이 국가발전 및 국가전략의 모색에 있어 지리적 조건을 필수적인 고려요소로 간주하는 정치 및 국제정치이론의 전통을 지정학(geopolitics) 혹은 지전략(geostrategy)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지정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가전략을 강구하였던 고전적 사례로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BC 430년경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이끄는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국력성장을 두려워하며 이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쟁을 도발해오자, 페리클레스는 개전을 두려워하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스파르타가 비록 육군의 강점이 있다고 하나, 아테네는 해군의 힘이 뛰어나고, 선박 항행과 상륙작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능히 바다를 지배할 수 있고, 장기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¹⁾ 요컨대 페리클레스는 아테네가 해양국가로서의 지리적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륙국가인 스파르타를 상대로 자신의 강점과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전쟁수행방식으로 대적하면 능히 승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같은 지정학적 전통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국가전략이나 국제정치이론의 세계에서 계승되고 있다. 19세기 말, 미국의 전략가 알프레드 마한은 대영제국이 그러하였듯 미국도 대서양과 태평양을 끼고 있는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미국이 해군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카리브해나 태평양 방면으로 해양 팽창을 하고 이곳 지역들의 식민지를 획득하여야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해양전략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20세기 초반 영국과 독일에서 각각 활동한 매킨더나 독일 하우스호퍼 등은 산업화 시대에는 해양력보다 철도기술, 광업기술, 농업기술에 의해 국가부강이 결정될 것이고, 이러한 이점을 제공하는 광대한 중앙아시아의 영역을 장악하는 국가들이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정학적 사유가 히틀러에 의해 수용되어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이념적 기원이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²⁾ 제2차 세계대전 이

1)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박광순 옮김(범우사, 1993), pp.134-136.

후 현대국제정치학, 특히 현실주의 이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한스 모겐소도 국력의 한 요소로서 지리적 조건을 중시한 바 있다.³⁾

지정학적 사유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개별 국가들의 국가전략과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원동력(driving force)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의 국방전략지침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을 표방하면서, 안보 및 경제정책의 중점을 아태지역에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중국 시진핑 정부도 아시아운명공동체(Asian Community of Common Destiny)를 표방하면서, 아태지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아시아 태평양 해역은 각각의 전략과 세력투사가, 어떤 경우에는 대립적 양상으로, 다른 경우에는 협력적 양상을 보이면서, 충돌하는 장(場)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강대국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은 각각 어떠한 지정학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지정학적 인식은 과연 양국이 추진하는 대외정책과 안보전략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 특히 아태지역에 대한 양국의 지정학적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그러한 인식에 따라 전개되는 동지역에 대한 세력투사의 양상은 어떤 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세력구도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하는 대외전략, 특히 해양전략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탈냉전기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과 대외전략

1. 미국의 경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자국의 국가전략에서 중요 요소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미서전쟁의 결과 하와이, 괌 및 필리핀을 병합하면서 부터이다.⁴⁾ 이후 미국은 하와이에 태평양 함대를 배치하고, 잠재적인 적대세

2) Paul M.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British Naval Mastery* (London: The Trinity Press, 1976), p.184.

3)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McGraw Hill, 1948, 2006), pp.122-123.

력으로 상정되었던 제국 일본 해군에 대한 전쟁계획도 수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자국의 발전과 안보상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였다. 일본과의 태평양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 내부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승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물러나 고립정책으로 회귀한 역사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대두하였다. 이 당시 취한 고립정책 회귀의 결과 남태평양 도서의 상당부분을 국제연맹의 위임 하에 일본이 통치하게 되었고, 결국 1941년 12월, 진주만에 대한 일본 해군의 기습공격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지정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미 합참과 해군, 그리고 미국 의회 등에서는 전쟁 수행 과정 중에 미국이 장악했던 대서양과 태평양의 주요 해군 기지들을 잠재적 위협세력에 의한 접근 방지를 위해 미국이 계속 장악하여야 하며, 특히 태평양 상에서는 알류산 열도에서 이오지마, 오키나와, 필리핀, 괌, 하와이, 사이판, 그리고 호주 연안 등의 도서와 해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건의들이 제기되었다.⁶⁾ 1946년 이후 소련과의 냉전적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미 해군 니미즈 제독 등은 공산주의 소련의 위협에 대비하여 더욱 항모타격세력을 포함한 해군세력을 대서양과 태평양의 다수 기지들에 배치할 필요성을 트루만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하였다.⁷⁾

이 같은 아시아 태평양 방면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인식은 탈냉전기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비록 냉전기를 지배하던 소련으로부터의 위협 인식은 사라졌지만, 중국, 이란,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이를 대체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미국 외교안보전략에서 재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2월, 미 국방성이 작성한 전략지침서는 그 서두에서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이 서태평양, 동아시아와 인도양, 그리고 남아시아로 이어지는 지역과 불가분하게 연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⁸⁾ 다만 이 같은 아태

4) Kenneth J. Hagan, *The People's Navy: The Making of American Sea Power* (New York: The Free Press, 1991), p.193.

5) Hal M. Friedman, *Governing the American Lake: The U.S. Defense and Administration of the Pacific, 1945-1947*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07), introduction 참조.

6) 1945년 9월, 미 해군의 정책 건의 참조. John W. Dower, "Occupied Japan and the American Lake, 1945-1950" Edward Friedman and Mark Selden, *America's Asia: Dissenting Essays on Asian-American Rel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9), pp.159-60.

7) 1946년 7월 니미즈 제독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 참조. Hal M. Friedman, op.cit, p.105.

8) 이하의 내용은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Defense* (January 2012)을 참조.

지역에서 중국이 전략적 의도에 대한 불투명성을 수반하면서 군사력을 성장시키고 있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이란이 핵능력을 개발하려는 점 등이 잠재적 위협이라고 파악한다. 이같은 위협요소들에 대응하여 위 문서는 미국 군사력이 글로벌 안보에 계속 공헌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향해 군사력 재균형(rebalancing)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즉 중국과 이란 등이 미국의 파워투사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사이버 전쟁 능력 등 비대칭적 수단을 확보하려 하면서 반접근 지역거부(anti access area denial:A2/AD)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합동작전접근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JOAC) 하에 해저 능력, 스텔스 전폭기, 미사일 방어체제, 우주기반능력을 강화하면서, 한 지역에서 대규모 작전수행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적대세력의 목표를 거부하는 군사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이 지역 동맹국들 및 핵심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아태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환기시키면서 군사력 재균형 전략을 표방한 위 문서의 기본 취지는 2014년 3월, 미 국방성이 공표한 4년주기 국방 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QDR 2014)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QDR 2014는 서두에서 아태지역이 글로벌 통상, 정치, 안보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미국이 지난 1세기 이상 태평양 국가였다고 강조한다.⁹⁾ 다만 중국이 급속한 속도로 군사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A2/AD 전략 하에 미국의 능력에 대항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도 미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있고, 이란도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안보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위협요인들에 직면하여 QDR 2014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군사력 재균형 전략이 필요하고, 그 시행을 위해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및 태국 등과 안보동맹을 현대화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핵심적 파트너들과 방어관계를 심화시키며, 중국과는 인도주의적 원조나 해적대처나 인도주의적 원조 ed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2012년 국방성 전략지침과 QDR 2014에서 제창된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력 재균형 전략은 오바마 제2기 임기를 맞아 2015년 2월에 공표된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2015)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NSS

9)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Department of Defense, March 4, 2014).

2015는 미국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태평양국가(Pacific Power)로 남을 것이라고 언명하면서, 중국의 군사현대화, 북한의 군사도발 등의 위협요인들에 대해 미국이 아태지역 군사력 재균형 정책의 기초를 유지할 것이라고 재천명하고 있다.¹⁰⁾ 구체적으로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등과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연대를 강화하고, 아세안, 동아시아 정상회의, APEC 등 역내 기구와의 관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안정적, 평화적 부상을 환영하면서, 중국과 경쟁은 있을 수 있으나 충돌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그러면서 중국과 기후변화, 경제성장, 한반도 비핵화 등 지역적, 글로벌적 이슈들에 대해 협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의 태평양전쟁 경험이나 냉전기 소련의 위협에 바탕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자국의 안보상 국가이익에 직결된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21세기 오바마 행정부에도 계승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국방전략 지침, 2014년 QDR, 그리고 2015년 NSS 등을 통해 일관되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북한, 이란의 군사적 동향을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인식하면서, 미국이 태평양 국가라고 하는 정체성 하에서 군사력 재균형 정책을 취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력 재균형 정책의 구체적인 과제로서는 중국이나 이란의 A2/AD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 군사 외 이 지역과의 다양한 경제적, 외교적 연대관계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국의 경우

중국은 마오쩌둥이 집권하던 냉전기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질 않았다. 중국이 아태지역 해양에 대해 지정학적 개념 같은 것을 모색하던 시기는 마오의 사망 이후 덩샤오핑이 실권을 잡으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하던 시기와 중첩된다. 즉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에서 소위 제1도련 및 제2도련의 개념이 나오면서 장차 해군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타이완-필리핀을 잇는 선 및 그 외곽 해역까지 진출해야 한다

10)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February 2015).

는 구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해양진출 구상에 따라 중국은 해군력을 비롯한 해양투사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국가해양국 등 관련 부서와 법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의 국력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권으로 부상하게 된 2010년 전후로 하여 중국 내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역전략 및 국가전략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듯 하다.¹¹⁾

그렇다면 21세기에 접어들어서 미국이 ‘태평양국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력 재균형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은 어떤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중국 언론들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자국의 전략적 사고와 국가담론 형성 능력이 열세이고, 특히 지정학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¹²⁾ 그러나 중국 정책결정자들과 지식인들의 담론을 종합해 보면,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담론에 대응하는 형태로 중국 내에서도 대항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징후가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군사력 재균형 정책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중국 내에서는 대항적 경쟁론과 신형대국관계론 혹은 아시아 운명공동체론 등이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 바이다.

대항적 경쟁론이란 미국의 군사력 재균형 정책이 일본-한국-타이완-남중국해-필리핀-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를 잇는 열도선을 건설하여 중국을 봉쇄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고,¹³⁾ 글로벌 공공재 및 해양항행의 자유와 같은 논리 속에서 중국의 활동을 억제하고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¹⁴⁾ 미국과의 대항적 경쟁론을 가장 강력하게 개진하는 학자가 칭화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인 옌쉐통(閻學通) 교수이다.¹⁵⁾ 버클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옌 교수는 기존의 강대국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간 국력격차

11) 이에 대해서는 줄고, 「미중 해군력 경쟁의 전망과 한국의 해양전략」, 전재성 편저,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늘품플러스, 2015) 참조.

12) “Chinese narratives absent in global strategic thinking” *Global Times*, May 22, 2014.

13) 2012년 12월, 중국 해양권익에 대한 포럼에서 중국 국방기술대학 연구과 부소장 우 구이후(Wu Guifu) 소장이 행한 발표 참조. 다음 기사에서 재인용. Wen Ya, “US threatens China’s maritime rights, say experts” *Global Times*, January 1, 2013.

14) 이러한 인식은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인 왕 이웨이(Wang Yiwei) 다음 칼럼에서 나타난다. Wang Yiwei, “Rebalancing won’t boost US role in East Asia” *Global Times*, December 29, 2013.

15) 옌쉐통(閻學通, Yan Xuetong) 교수의 견해는 Yan Xuetong, “How China can defeat Americ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21, 2011. 혹은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아사히신문 논설위원과의 인터뷰 기사 참조, 『朝日新聞』 2012년 12월 12일자.

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며, 양국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단언한다. 미국의 군사력 재균형 정책은 아태지역에서 동맹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TPP도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한 미국과 중국이 향후 양극체제를 형성하면서, 상호 군사적인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 외교, 문화, 정치 면에서 상당 기간 경쟁관계를 벌일 것이며, 설사 협력 양상이 나타난다 해도,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소련이 그러했듯이 신뢰없는 협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제사회 지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 외에 고대 유가사상에서 강조하던 도덕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중국은 국내 정치모델로는 사회적 정의와 공공성을 갖춘 조화사회를 추구하고, 대외적으로 도덕적 리더십을 제공하면서,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하고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이징 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왕지스 교수도 2012년 3월, 중국에서 개최된 세미나를 통해 중국 지도부가 2010년 전후 중국이 거둔 국제적, 경제적, 과학기술적, 그리고 군사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제적 지위를 수년 내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미중간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¹⁶⁾

다른 한편 중국의 식자들 간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상호 협력을 기조로 하는 신형대국관계로 설정하고, 그 이외 아시아 주변국가들과 중층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전략담론도 제기되고 있다. 상하이 푸단대학교 미국학연구소장인 우신보(Wu Xinbo) 교수는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는 군사력 재균형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과 충돌을 배제하고, 상호 존경과 상호이익에 기반하는 신형대국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일본, 한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주변국과는 평화발전 정책에 따라 “포괄적 지역경제동반자형태(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의 결성을 추진하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대응 정책(tit-for-tat)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¹⁷⁾ 시진핑 주석이 공식 제안한 신형대국관계는 여타 학자

16) 다음 기사에서 재인용. Jane Perlez, “Chinese leaders see eclipse of U.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3, 2012.

17) Wu Xinbo, “Not Backing Down: China Responds to the US Rebalance to Asia” *Global Asia*, vol.7, no.4(Winter 2012).

들에 의해서도 같은 입장이 표명되고 있다. 런민대학 진칸룽 교수도 미중 양국은 전통적 대국관계와 달리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에 따라, 경쟁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였다.¹⁸⁾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칭화대학 순쉐핑 교수는 중국 주변국들이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4가지 유형, 즉 미국 안보 우산 하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일본과 필리핀, 미국 보호 하에서 중국과도 우호적으로 지내는 한국,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보호없이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베트남, 인도, 그리고 미국과 관계없이 중국과 우호적인 북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유형이 있다고 전제하고, 각각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전개할 필요를 주장하였다.¹⁹⁾ 한편 우신보 교수는 미국이 동맹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많은 안보 파트너들을 만들어내고 있듯이, 중국도 아태지역 소규모 및 중급국가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많은 파트너를 만들고, 미국 동맹국들과도 친구가 되는 스마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부연한 바 있다.²⁰⁾

이상에서 살핀 두가지 유형의 전략담론 속에서 중국 시진핑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는 경쟁과 대립을 신중하게 회피하려는 신형대국관계론의 입장을 추진하고 있고, 주변국에 대해서는 새롭게 ‘아시아운명공동체(Asian Community of Common Destiny)’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3월 28일,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천명한 ‘아시아 운명공동체’란 중국이 아시아 국가이고, 부상하는 중국이 지속적 발전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발전기회를 공유할 수 있는가, 협력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가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인식 하에서 여러 경제, 정치 협력을 확대해 가려는 구상을 말한다.²¹⁾ ‘아시아 운명공동체’ 개념 하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

18) Interview with Jin Canrong, “Containment mentality in danger of becoming self-fulfilling prophecy” *Global Times*, July 10, 2013.

19) Sun Xuefeng,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세계관. 2013년 북경 칭화대학 Institute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가 주관한 2013 연례 Chinese Community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meeting 발표문.

20) 2014년 12월, *Global Times*가 주최한 연례 세미나에서 우 신보교수가 발표한 내용 요약 참조. *Global Times*, 12.7, 2014.

21) ‘아시아운명공동체’의 개념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5년 3월에 개최된 보아오 포럼에서 강조하였다. “Towards 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and a New Future for Asia: Keynote speech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t the Boao Forum for Asia Annual Conference 2015”(March 28, 2015). (www.fmprc.gov.cn/mfa_eng/tipics_665678_/xjpcxbayzlt2015nnh/t1250690.shtml). “Editorial: Common destiny brings Asian state closer” *Global Times*, 3.27, 2015도 참조.

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 구상 및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AIIB) 구상, 그리고 2020년까지 한중일 및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하여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구상 등은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력 재균형 전략에 대응하는 중국의 지정학적 개념이라고 보여진다.²²⁾

Ⅲ. 미국과 중국의 아태지역 세력투사

2010년 이래 미국은 주요 공문서에서 자국을 ‘태평양국가(Pacific Power)’라고 규정하면서 군사력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도 자신을 ‘아시아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신형대국관계’를, 그리고 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아시아운명공동체’ 개념을 제시하면서 대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개념 하에서 구체적으로 동 지역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일까?

1. 미국의 경우

QDR 2014는 미국의 이익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 필리핀 및 태국과는 안보동맹을 현대화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등 핵심적 파트너 국가들과도 방어관계를 심화하고, 중국과는 군간의 실질적 대화를 지속하면서 해적대처, 평화유지활동, 인도주의적 원조, 재해구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²³⁾ 동시에 QDR 2014는 우월한 파워투사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 핵공격 억제 능력 및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2020년까지 미 해군자산의 60%를 태평양 지역에 주둔시키고, 일본내 미 제7함대 자

22)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이 인도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Spice Route 구상이나 Mausam Project와 유사성을 가진다고 보고, 인도와의 지정학적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23)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Department of Defense, March 4, 2014).

산을 증대시키며, 싱가포르에 대한 연안전투함(LCS)을 순회배치시키고,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 종료에 따라 병력들 다수를 아태지역에 재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A2/AD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F-35 전투기, 장거리 타격능력, 정찰전력, 수중전력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였다.

QDR 2014가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미국은 아태지역에 대해 관련 국가들과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전력을 증강하는데 관심을 집중해 왔다. 수잔 라이스 안보보좌관은 2013년 11월에 행한 연설에서 군사력 재균형 전략 하에 하와이에 사령부를 둔 태평양사령부가 최첨단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본과는 방위협력 가이드라인을 15년 만에 재개정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북한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하였다.²⁴⁾ 일본 자위대와 미군 간의 연합 해군훈련도 규모와 빈도가 증대되고 있는데, 특히 미 해병대는 2010년도 전후하여 자위대 전력과 괌 및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서의 연합상륙작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와의 안보관계 강화가 눈에 띄고 있다. 2010년 힐러리 국무장관은 베트남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합의하였고, 2011년에는 방위협력에 관한 양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양국은 연례 해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²⁵⁾ 중국과 해상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4월 28일, 아키노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통해 필리핀의 해상방위, 군사능력 향상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으며, 1990년대 이래 철수했던 필리핀 군 시설을 미군이 다시 이용하도록 하는 약정을 맺었다.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2013년 봄부터 연안상륙함을 10개월 단위로 배치시키면서, 중국 등 여타 해군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태국와도 연례적으로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안보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대양주 지역의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와도 안보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2012년 4월부터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다윈에 미 해병대 250명이 배치되었고, 2016년까지 총 2500명의 해병대가 주둔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다.²⁶⁾ 1990년대 초반 미국과의 동맹조약에서 이탈했던 뉴질랜드와도

24) Susan E. Rice, "America's Future in Asia" (Georgetown University, November 20, 2013).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11/21/remarks-prepared-delivery-n...)

25) Robert S. Ross, "The Problem With the Pivot: Obama's New Asia Policy is Unnecessary and counterproductive"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12., p.78.

방위협력관계를 회복하였다. 또한 중동 지역의 전쟁들이 종료되면서 총 18만 명에 달했던 현지 주둔 병력들의 일부를 아태지역으로 재배치하였고, B-1이나 B-52 장거리 폭격기 및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들도 중동지역에서 아태지역으로 전환배치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력 재균형 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지역 국가들은 적극적 협력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및 태국 등은 미국의 아태지역 관여 심화를 환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면, 아베 정부는 2013년 12월을 기해 공표한 국가안보전략서 및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미국의 군사력 재균형 정책과 유사한 정세인식을 보인바 있다.²⁷⁾ 처음으로 작성된 국가안보전략서는 일본이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해상무역과 해양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수행해온 해양국가라는 지리적 정체성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일본에게 중국의 해공군력 증가 등 군사력 현대화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군사적 도발이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방위계획대강 2013은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에 근거한 자위대 군사력 강화 및 미일동맹 강화, 그리고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아세안 국가 등 역내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군사력 재균형 정책이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경우 미중간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보스턴 칼리지의 중국 전문가인 로버트 로스 교수는 미국의 군사력 재균형 혹은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이 결국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전개를 강화하여 중국에 불필요하게 도전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공격성이 강화되고, 지역 안정성이 손상되며, 미국의 안보이익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²⁸⁾ 시카고 대학의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쉐이머는 신흥대국이 부상하여 기존의 패권국가와 교체될 때 평화적으로 교체된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부상에 따라 향후 아시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²⁹⁾

26) Elisabeth Bumiller, "U.S. pivot to Pacific is just starting to take shap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2, 2012.

27) 국가안보장회의 및 각의 결정,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2013.12.17.), 「平成26年度以後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각각 참조.

28) Robert S. Ross, 앞의 논문, pp.72,81.

29) John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개정판에서. 다음 칼럼에서 재인

미어쉴레이머가 지적하고 있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 즉 기존 강대국들이 부상하는 신흥 대국과 반드시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명제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충분히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이 추진하는 군사력 재균형 정책이 중국과의 신행대국관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갖고 있음을 특히 역설하고 있다. 안보보좌관 수잔 라이스는 중국과 전략안보대화 등을 통해 경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관리하지만, 이익이 공유되는 부분에서는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특히 해적대책과 해양안보 이슈, 한반도 비핵화,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아프간 안정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하였다.³⁰⁾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2014년 4월 8일, 중국 국방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력 재균형 정책은 중국과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양국간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이익 공유와 협력, 개방성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행군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¹⁾ 이러한 관점에서 미중간 군사교류와 협력 양상도 전개되고 있는데, 예컨대 2014년 7월, 하와이에서 미국 주도로 개최된 환태평양군사훈련(Rim of the Pacific)에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처음으로 참가하여 미국 등과 공동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미국은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력 재균형 전략 하에 해군전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을 동 지역으로 집중 투사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및 베트남 등 역내 국가들도 중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고려하면서, 적극 협력하고 있는 양상을 노정시키고 있다. 일부 미국내 식자들은 이같은 군사력 재균형 정책의 구도가 중국의 공격성을 유발하고, 역내 질서의 불안정 나아가 전쟁까지 초래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미국내 정책결정자들은 군사력 재균형 정책이 중국이 표방해온 신행대국관계와 조화될 수 있는 정책목표이며, 중국과 해적대책, 해상재난구원, 한반도 비핵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협력이 병행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용. Roger Cohen, "China's Monroe Doctrine"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May 9, 2014.
30) Susan E. Rice, 앞의 연설 참조.

31) Secretary Hagel's remarks at People's Liberation Army National Defense University. (4.8, 2014). (www.cfr.org/regional-security/secretary-hagles-remarks-peoples-liberation-arm)

2. 중국의 경우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군사력 재균형 정책이 중국이 표방하는 신형대국관계와 조응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신형군사관계 개념 하에 해양안보 협력, 해상재난구조, 한반도 비핵화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식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어떠한 반응과 대응정책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력 재균형 정책에 대한 상당한 불신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듯 하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3년 7월에 공표한 『미국청서 2013』에서 미국의 군사력 재균형 정책은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과 주변국간 전개되고 있는 영토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미얀마 및 베트남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거나,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중국과 거리를 두도록 촉구하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주장한다. 중국내 대표적인 미국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인 쉐ਂ딩리 푸단대학 교수도 최근의 칼럼을 통해 일본이 자국 자위대를 운용한 항공순찰을 남중국해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미국 제7함대 사령관 로버트 토마스 제독과 국방성이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부추겨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³²⁾ 그는 아예 미국이 남중국해에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명백한 선동자(obvious agitator)라고 비판하였다.

아태지역 해양분쟁에 대한 미국의 관여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이버전략 강화도 중국을 노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 4월 7일, 중국의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2009년 미국에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되고, 2011년에는 사이버 전략서가 공표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2014년 3월, 헤이글 국방장관이 사이버 공간이 미래 전쟁의 한 분야가 될 것이고, 2016년까지 그에 대비해 6천여명의 사이버 요원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연설을 맹비난하였다. 글로벌타임스에 의하면 사이버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과 같은 거대한 운영체제를 보유한 미국이며, 중국은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항변하였다.³³⁾

32) Shen Dingli, "Why is the US constantly sowing discord in South China Sea?" *People's Daily*, February 5, 2015.

33) Huang Rihan, "Common interests must prevail in cyber spats between US and China"

이같은 미국의 아태지역 및 중국에 대한 군사력 재균형 정책에 대해 중국은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전개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중국은 인민해방군 해군 산하의 전력을 증강하고,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항모 랴오닝 건조 및 배치, 3개 함대, 즉 북해, 동해, 남해 함대의 공동해군훈련 증가와 서태평양에 연해 있는 제2도련선으로의 빈번한 진출, 우리의 해양경찰에 해당하는 국가해양국 산하 해안경비정 전력의 증강과 활동범위 확대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중국 공군 전략폭격기들도 서태평양 방면으로 진출하여 군사훈련을 늘리고 있다.³⁴⁾

아울러 중국은 러시아 및 여타 상하이 협력기구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지역 군사력 재균형 정책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1996년에 이미 전략적 동반자 협력관계를 선언하면서, 유라시아에서의 지전략적 균형과 안정 달성, 범세계적 다극질서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바 있다.³⁵⁾ 이같은 협력 프레임 하에서 양국은 상호 무기거래, 합동군사훈련 실시, 상하이 협력기구 틀 내에서의 군사안보관계를 강화해 왔다. 미국의 군사력 재균형 정책이 표면화된 이후에도 양국은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행동을 제약하고, 공동의 연합해상훈련을 확대하면서, 미국을 제약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다.³⁶⁾ 러시아 측도 중국의 이러한 전략에 대체적으로 공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외무성은 2012년 2월, 최신 외교정책 개념을 공표한 바 있는데, 이에는 미국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러시아 대외영향력의 확대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표명된 바 있다.³⁷⁾ 2014년 5월 20일, 중국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러간 교역규모 증대, 대중국 천연가스 공급 증대, 항공기, 헬기, 광산, 농업, 교통 분야에서의 양국간 기술협력 확대 등을 공동합의한 바 있

Global Times, April 7, 2014. 물론 글로벌 타임스 기자는 미중 간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오해와 분쟁을 막기 위한 다채널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4) 2015년 3월 30일, 중국 공군은 전략폭격기 부대가 필리핀과 타이완 사이의 바시해협을 지나 서태평양 공역에 최초로 진출하여 공군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동아일보』 2015년 4월 1일 보도에서 재인용.

35) 신범식, “러시아-중국 안보군사협력관계의 변화와 전망” 『21세기 동북아 동맹구조의 변화와 전망: 2006년 한국정치학회 국방안보학술회의 발표자료집』 (한국정치학회, 2006).

36) Leslie H. Gelb and Dimitri K. Simes, “China and Russia: A new anti-American axi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8, 2013.

37) 다음 칼럼에서 재인용. Ariel Cohen, “The Kremlin’s worl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6-7, 2013.

다.³⁸⁾ 즉 미국이 아태지역 내의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및 베트남 등과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력 재균형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은 러시아 및 상하이 협력기구 국가들과의 안보 및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의해 미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려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중국은 남중국해를 통해 인도양 및 중앙아시아 방면으로의 해양 진출 및 경제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이 남중국해 방면의 제해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관측은 미국 관찰자들에 의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안 모리스는 뉴욕타임스 서평을 통해, 미국이 19세기 후반 카리브해 해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였듯이, 현재의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 해군을 대체하여 지배세력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³⁹⁾ 그리고 냉전기 구소련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대해서 그러했듯이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해군력 확장을 통해 연안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핀란드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중국은 남중국해 만이 아니라 인도양 해역까지 해군 활동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2012년 12월 13일, 중국 남해함대 사령관 수 지기안 제독은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중국 해군이 적극적으로 인도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⁴⁰⁾ 인도양 방면에 대한 중국 해군력의 영향력 확대 노력은 최근 중국이 서부지역 경제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표방하고 있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계획(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 최근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인 리 카이셴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기하였다.⁴¹⁾ 글로벌 타임스에 게재된 글에서 그는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 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을 표방하고 있지만, 중국은 주권보호와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지역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 즉 실크로드 경제벨트(Silk Road Economic

38) Neil MacFarquhar and David M. Herszenhorn, "To counter West, Russia explores ties with China"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May 21, 2014.

39) Ian Morris, "Book Review: The Shifting tide of power across the South China Sea",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April 21, 2014. 이안 모리스의 서평은 다음 책에 대한 것이었다. Robert D. Kaplan, *Asia's Cauldro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nd of Stable Pacific* (Random House, 2014).

40) "Chinese navy to actively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f Indian Ocean" *Global Times*, December 17, 2012.

41) 이하 내용은 다음 칼럼 참조. Li Kaisheng, "Will South China Sea stay peaceful in 2015?" *Global Times*, 1.29, 2015.

Belt)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계획이 지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즉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세력투사에 다름아닌 군사력 재균형 정책에 대해 중국은 오히려 남중국해와 인도양 방면에 대한 영향력 투사, 즉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5년 3월, 보아오 포럼에서 발표한 ‘아시아운명공동체’ 개념과 2020년까지의 ‘아시아 경제공동체’ 개념을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구상과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구상 및 개념들은 단순히 경제발전 구상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력 재균형 전략에 대한 거대한 지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IV. 아태지역 전략적 경쟁과 협력의 구도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력 재균형 전략과 해공군력의 전방배치 가속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개념과 ‘아시아운명공동체’의 지전략적 개념, 이에 따른 해군력과 공군력의 강화 양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두가지 상반되는 구도를 노정시키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의 세력투사와 중국의 세력투사가 충돌하는 경쟁과 대립의 양상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파국적인 충돌을 방지하면서 상호 신뢰구축을 도모하려는 양상이다.

1. 경쟁의 구도

우선 미국과 중국의 아태 지역에 대한 지전략적 개념과 세력투사가 충돌하면서 경쟁과 대립의 양상을 노정하고 있는 국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 혹은 군사력 재균형 전략에 따라, 해공군을 중심으로 공해전투(AirSea Battle) 구상이 제기되고 있다. 미 태평양함대 정보담당 부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부대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혹은 이를 지원하려는 미 해군함대를 격파하기 위해 단기간에 결정적

해전을 수행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⁴²⁾ 이러한 반접근 지역 거부(A2/AD)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 해공군의 전력투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도 해, 공군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대응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미 해군은 서태평양 혹은 동중국해 해상에서 중국 해군의 실력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 훈련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가을, 미국 프로비던스에 소재한 미 해군대학에서 실시된 전쟁모의게임(War Game)에서는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지휘통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한 조건을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

한편 중국도 미국의 이러한 해군력 견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 대한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일본 열도 주변에서의 해군합동훈련도 강화하고 있다.⁴³⁾ 이러한 과정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해군, 혹은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과 중국 해군 함정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13년 1월, 중국 해군 함선들은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과 헬기에 대해 실제 사격시 운용하는 레이더 광선을 발사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도 중국 함선들과 미국 순양함이 지근거리에서 접근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중국 해군 함정들이 해상에서 상호 경쟁과 대립을 노정하는 상황은 자연스럽게 양국의 해군 전력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 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해군이 증강하고 있는 A2/AD 전력과 그에 대응하는 미국 해군 및 공군전력을 간단히 도시한 것이다.

〈표 1〉 아태지역내 중국의 대표적인 A2/AD 전력과 미국의 대응전력⁴⁴⁾

	중국	미국
해상	소브레멘누 미사일 구축함 킬로급 잠수함	요코스카 기지: 항모, 미사일 구축함 괌 기지: 미사일원잠SSGN
항공 및 미사일 전력	H-6D, H-6K폭격기 DF-21D 대함 탄도미사일	가테나 기지: F-22, F-15 미사와 기지: F-16 괌 기지: B-52 폭격기

42) 2014년 2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미 태평양함대 정보담당 대령이 발표한 자료를 아사히신문 가토 요이치 논설위원이 보도한 다음의 기사 참조. 『朝日新聞』 2014.4.9.

43) Michael J.Green, "Negotiating Asia's troubled waters"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April 24, 2014.

44) 『朝日新聞』 2014.4.9. 가토 요이치 칼럼에서 재인용.

〈표 1〉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 해군은 소브레멘느 미사일 구축함 및 킬로급 잠수함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H-6K 전략폭격기와 DF-21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요코스카와 괌 기지의 해군전력을 강화하고 그 외에 가데나, 미사와 및 괌 기지 등에 배치된 공군전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미국 방업체인 로키드마틴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중이고, 다른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은 중국의 대공미사일로부터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한 신형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A2/AD 전략을 추진하는 중국과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력 재균형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 간에는 해공군 전력, 그리고 미사일 전력 분야에서 일정 정도의 군비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협력의 구도

한편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국간 경쟁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신중한 자세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군사력 재균형 정책이 중국의 공격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적 인식도 존재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신형대국관계론의 기초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이같은 절제된 상호 인식 하에서 양국은 상호 신뢰구축과 군사적 협력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2014년 4월 8일, 미국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국방부장 창완취안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은 이같은 양국간 신뢰구축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⁴⁵⁾ 이 회견에서 양측은 신형군사관계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며, 주요 군사행위에 관해 상호 통지하는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공해상에서 양국 해군과 공군의 안전행위 규정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고, 나아가 양국 군과 군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대화를 제도화할 것에 합의하였고, 2014년내에 아시아태평양 안보대화도 갖기로 한 것이다.

45) Defense Secretary Chuck Hagel and Defense Minister Chang Wangquan, "Joint Press Conference with Secretary Hagel and Minister Chang" (4.8, 2014).

(www.cfr.org/defense-strategy/joint-press-conference-secretary-hagel-minister-c).

이 회의 직후인 4월 22일, 칭다오에서 개최된 서태평양 해군심포지움(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은 특히 미국과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이 해양질서에 관한 신뢰구축의 노력 추진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미국, 중국, 일본 등 20여개국의 해군 대표단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지난 10여년간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되어오던 우발적 충돌 방지협정(The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을 승인하였다.⁴⁶⁾ 이 협정에 따라 참가국들은 해군함정과 공군기들의 조우시에 개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운용과 신호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현장 지휘관들에게 개입의 사고를 회피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국가들이 아시아태평양의 해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분쟁 격화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 협정 체결 이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해리 해리스 제독은 이 협정이 아태지역에서의 긴장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였고, 마찬가지로 중국 해군 참모총장 우성리 제독도 이 협정이 신기원을 이루는 문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같은 양국 해군 고위 지휘관들의 공통된 평가에서 나타나듯, 이 협정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우발적 해상 분쟁을 방지하고, 양국 해군 간의 신뢰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첫발을 떤 것이다.

V. 한국의 대응전략: 한미일 해양협력의 방향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재 아태지역 해양질서는 미국이 표방하는 군사력 재균형 전략과 중국이 표방하는 ‘신형대국관계론’ 및 ‘아시아 운명공동체론’, 그리고 그 하위전략으로 제시되는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과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 개념이 부딪히면서 새로운 지정학적 구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이 아태지역에 전체 해군전력의 60%를 집중배치하면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베트남 및 필리핀 등과의 동맹 및 안보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도 러시아나 상하이 협력기구 국가들과 ‘다극화 질서 구축’을 표방하면서, 상호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46) Austin Ramzy and Chris Buckley, “Deal on conduct at sea is reached”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April 24, 2014.

있고, 인도 등 서남아 국가들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구상에 따라 경제적, 안보적 협력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이같이 경쟁과 대립의 구도가 노정되는 한편, 미국과 중국은 2014년을 계기로 아시아안보대화를 개최하거나,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호신뢰구축과 협력의 메카니즘을 구축해 가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경쟁과 협력, 충돌의 위험성과 상호 신뢰구축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아태지역 내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한국 해군전략은 일단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북한의 군사적 도발 및 핵위협을 억제하고 나아가 한미일 해군 협력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모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안보 및 군사측면에서 한미일 3국간에 상호 논의가 개시된 것은 1990년대 후반, 미일간 가이드라인에서 한반도 유사사태를 상정한 대응이 논의되고,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등을 발사하면서, 위협 수준을 높이면서부터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 핵문제를 공동논의하는 한미일 정책협의기구(TCOG)가 발족되었고, 최근까지도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한미일간 정책조정메카니즘은 작동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 필요성과 상호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미일 간에는 2012년 6월의 3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일 간에 최초의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년 6월 21일, 미국의 항모 조지 워싱턴 및 일본의 호위함 3척, 그리고 한국의 해군 함정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적 목적에 국한하여 해상수색, 구조, 해양차단작전 등 연합해상훈련이 실시되었다.⁴⁷⁾ 2013년 6월 1일, 재차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아태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해 3국의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고, 3국이 공동으로 해적대책, 인도지원 및 재해구난, 대량파괴무기 확산 대처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동년 10월 8일과 10일에 걸쳐 한반도 근해에서 항모 조지 워싱턴 등 3국 해군의 함정들이 참가한 가운데 재해시 대응과 구난을 목표로 한 연합해상훈련이 실시되었다.⁴⁸⁾ 2012년 12월 아베 정부 취임과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관계는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등 악화일로를 걸었고, 양국간 여러 안보교류가 차질을 빚기도 한 것이 사실이나, 2014년 12월, 한미일 양국은 미국을 매개로

47)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Korea JoongAng Daily*, 5.9.2012 기사 참조. 3국의 연합해상훈련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2012년 6월 15일.

48) 『朝日新聞』 2013년 6월 2일 및 10월 4일 기사 참조.

하여 한국과 일본이 북한 정세와 관련된 각각의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대립과 협력의 구도 속에서 한미일 연합해군훈련을 2차례 이상 실시함으로써,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정책인 군사력 재균형 정책에 이해를 보이고, 이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한편 이같은 한국의 정책에 대해,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미일 해양협력 추세에 대해 중국측은 한국이 지나치게 대미의존적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2013년 2월 취임한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사회문화적 교류 심화뿐만 아니라 안보적 신뢰구축의 노력도 적지 않게 기울이고 있다. 2014년 7월 3일과 11월 10일에 각각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신뢰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한중간, 혹은 한중일간 안보협정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월 5일에는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의 국장급이 참석하는 제2회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개최되었고, 같은 해 2월 4일에는 우리측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중국측 창완치완 국방부장이 참가하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특히 양측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양측 국방부간의 직통전화선을 조기에 개설할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⁴⁹⁾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한중일 간의 외교부 실무자 회담 및 3국 장관급 회담도 2015년 접어들어 재개되고 있다. 특히 2015년 3월 21일에 개최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반도 핵개발에 대한 반대 의사가 표명되었고, 원자력 안전, 테러대책, 재해관리, 환경 분야에서의 3국 간 협력 확대가 합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중간, 혹은 한중일 간 차원에서 아직 공동의 해군훈련 및 해군간 협력이 어젠다로 제기된 바는 없는 듯하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지정학적 경쟁과 협력의 구도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지역 내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의 하나인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다. 미국이 아태지역 전략의 일환으로 추구하고 있는 한미일간 해군협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런 점에서 2012년 이후 인도주의적 목적 하에서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개최되어온 한미일 간의 연합해군훈련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력 재균형 전략에도 부응하면서, 실질적인 우리의 필요에도 부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적을 인도주의에 국한함으로써 중국이 느낄 수 있는 부담감

49) 『국방일보』 2015년 1월 5일과 2월 5일 기사 참조.

에도 많이 배려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간 해군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중국을 포함한 양자간, 혹은 다자간 해군협력도 추진해 봄직 하다. 예컨대 한중일간 해상수색 및 구난 훈련 실시, 혹은 환태평양 해상훈련(RIMPAC)에 참가하는 중국 해군과의 다자적 연합훈련 실시 등은 중국의 군사력 투명성 제고 및 평화로운 부상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아태 지역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외교적 카드도 될 수 있다.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세력투사가 일방적인 대립의 양상을 노정하지 않는 지금의 시기야말로 한국이 한미동맹 하에서의 한미일 해군협력 및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속에서의 한중간 해군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그를 통해 한국의 해군 능력을 증대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전략적 기회라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 박영준, 「미중 해군력 경쟁의 전망과 한국의 해양전략」, 전재성 편저,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늘품플러스, 2015)
- 신범식, 「러시아-중국 안보군사협력관계의 변화와 전망」 『21세기 동북아 동맹구조의 변화와 전망:2006년 한국정치학회 국방안보학술회의 발표자료집』(한국정치학회, 2006).
-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박광순 옮김(범우사, 1993)
- Bumiller, Elisabeth, “U.S. pivot to Pacific is just starting to take shap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2, 2012.
- Cohen, Roger, “China’s Monroe Doctrine”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May 9, 2014.
- Cohen, Ariel, “The Kremlin’s worl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6-7, 2013.
-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Defense* (January 2012).
-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Department of Defense, March 4, 2014).
- Dower, John W., “Occupied Japan and the American Lake, 1945-1950” Edward Friedman and Mark Selden, *America’s Asia: Dissenting Essays on Asian-American Rel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9).
- Hagan, Kenneth J., *The People’s Navy: The Making of American Sea Power* (New York: The Free Press, 1991).
- Hal M. Friedman, *Governing the American Lake: The U.S. Defense and Administration of the Pacific, 1945-1947*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07).
- Leslie H. Gelb and Dimitri K. Simes, “China and Russia: A new anti-American axi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8, 2013.
- Michael J. Green, “Negotiating Asia’s troubled waters”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April 24, 2014.
- Secretary Hagel’s remarks at People’s Liberation Army National Defense University.(4.8, 2014).
(www.cfr.org/regional-security/secretary-hagles-remarks-peoples-liberation-arm)
- Defense Secretary Chuck Hagel and Defense Minister Chang Wangquan, “Joint

- Press Conference with Secretary Hagel and Minister Chang” (4.8, 2014).
(www.cfr.org/defense-strategy/joint-press-conference-secretary-hagel-minister-c).
- Huang, Rihan, “Common interests must prevail in cyber spats between US and China” *Global Times*, April 7, 2014.
- Kennedy, Paul M., *The Rise and Fall of British Naval Mastery* (London: The Trinity Press, 1976).
- Li, Kaisheng, “Will South China Sea stay peaceful in 2015?” *Global Times*, 1.29, 2015.
- MacFarquhar, Neil and David M. Herszenhorn, “To counter West, Russia explores ties with China”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May 21, 2014.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McGraw Hill, 1948, 2006).
- Morris, Ian, “Book Review: The Shifting tide of power across the South China Sea”,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April 21, 2014.
- Perlez, Jane, “Chinese leaders see eclipse of U.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3, 2012.
- Ramzy, Austin and Chris Buckley, “Deal on conduct at sea is reached”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April 24, 2014.
- Rice, Susan E., “America’s Future in Asia” (Georgetown University, November 20, 2013).
- Ross, Robert S., “The Problem With the Pivot: Obama’s New Asia Policy is Unnecessary and counterproductive”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12.
- Shen, Dingli, “Why is the US constantly sowing discord in South China Sea?” *People’s Daily*, 2.5, 2015.
- Wang, Yiwei, “Rebalancing won’t boost US role in East Asia” *Global Times*, December 29, 2013.
- Wen, Ya, “US threatens China’s maritime rights, say experts” *Global Times*, January 1, 2013.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February 2015).
- Wu, Xinbo, “Not Backing Down: China Responds to the US Rebalance to Asia” *Global Asia*, vol.7, no.4(Winter 2012).
- Xi, Jinping, “Towards 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and a New Future for Asia: Keynote speech at the Boao Forum for Asia Annual Conference

2015”(March 28, 2015). (www.fmprc.gov.cn/mfa_eng/topics_665678/xjpcxbayzlt2015nnh/t1250690.shtml).

Yan, Xuetong, “How China can defeat Americ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21, 2011.

國家安全保障會議及び閣議決定, 「國家安全保障戰略について」(2013.12.17.).

國家安全保障會議及び閣議決定, 「平成26年度以後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13.12.17.).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Global Times*, 『朝日新聞』, 『국방일보』.

Abstract

Emerging Geopolitical Landscape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Necessity of ROK-Japan-US Maritime Cooperation

Park Young - June *

The Asia-Pacific Region has emerged as a arena of geo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Obama administration of the U.S. had laid out the concept of rebalancing strategy toward the region, concentrating its 60 percent of Naval Forces to the region till 2020 and consolidating its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Whereas Chinese leader Xi Jinping also put forward the concept of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 concerning its relations with the U.S. and a concept of ‘the Asian Community of Common Destiny’ aiming at a more intensified mutual relation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In doing so, Asia-Pacific region gradually became the arena where mutu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crossfired.

As a close ally to the U.S. and a partner to Japan, South Korea should develop trilateral naval cooperation by holding joint naval drill with the aim of humanitarian support and disaster relief. At the same time, Seoul also should make efforts to proceed mutual confidence building with Beijing by deepening military-to-military cooperation. These policy options will be helpful to enhance Seoul’s security posture in the region.

Key Words: U.S., China, Maritime cooperation, Geopolitics, Asia-Pacific region

논문접수: 2015년 3월 12일 | 논문심사: 2015년 4월 3일 | 게재확정: 2015년 4월 7일

*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